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의 고용실태와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임동진*

〈 目 次 〉

- | | |
|----------------|----------------|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IV. 벤처기업의 실태분석 |
| II. 선행연구 검토 | V. 요약 및 정책제언 |
| III. 조사설계 | |

〈 要 约 〉

본 논문은 벤처기업의 고용실태와 벤처지원정책의 활용실태 파악을 위해 2001년 현재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해 549개 업체 중 조사에 응한 395개 업체(응답율 71.9%)를 대상으로 2000년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산업별 고용실태를 보면,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37.74명으로 나타났고 산업별로는 전기·전자·반도체 산업이 63.88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고용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벤처기업의 인력충족상태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 53.6%, 적정하다 45.9%, 과잉이다 0.5%로 나타나 벤처기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업체가 전체의 절반이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요인은 창업자금 마련으로 절반이상인 55.6%로 나타났고, 전문인력의 확보 18.4%,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벤처기업에 도움이 된 정부정책은 융자지원 24.9%, 투자지원 22.9%, 코스닥활성화 22.3%, 신용보증확대 12.9%의 순으로 나타나 자금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식화·정보화시대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에 있어 벤처기업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며, 따라서 향후 저성장 경제하에서 매우 중요한 성장과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간주되고 있다¹⁾. 그러나 우리 경제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해 오지 못한 결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이 누적되어 급기야 IMF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을 맞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난국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화에 도전하는 신기술·지식집약형 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주체로서 벤처기업이 부각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이같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1997년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불기 시작한 벤처열풍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대한 반성과 현정부의 적극적 벤처육성 정책이 맞물리며 한국경제의 새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1998년 5월부터 동법에 의거하여 벤처기업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벤처기업인증을 부여하였으며, 정부는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에게 각종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1985년 5월 벤처인증제도를 시행한 이래 2001년 4월 현재 벤처기업이 1만개를 돌파했다. 1만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 이를 한국벤처의 양적·질적 변화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평가와 더불어 단순수치일 뿐이라는 평가절하도 있다.

2000년의 벤처기업의 수출액은 45억 6천만 달러로 1999년보다 42%나 증가해 전산업 평균 수출율 19%를 훨씬 상회하였다. 또한 1백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고용창출로 실업난 해소에 한몫을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반면, 거품논란과 일부 벤처인들의 도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벤처에 대한 기대는 2000년 4월 17일 '블랙 먼데이' 이후 급속히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정현준·진승현·서갑수 등으로 이어지는 비리사건까지 겹치며 일반투자가들의 기대는 환멸로 바뀌었다. 또한 투자심리도 급속히 위축되어 벤처투자를 위한 펀드 결성금액이 2000년

1) 중소기업청의 분석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일반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평균 매출 증가율, 평균 영업이익률, 자기자본비율 등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증가율도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중소기업청, 1999; 유규창·유효상, 2000).

4분기 4천9백억원을 웃돌았으나, 2001년 1분기에는 1천2백23억원의 수준으로 실적이 저조하였다.

이러한 벤처기업에 대한 명암과 정부의 벤처기업정책에 대하여 그 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정부정책이 벤처기업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단편적인 사례와 논리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벤처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책들이 일부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여러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하고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연구가 벤처기업에 대한 탐색적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①우리 나라 벤처인증기업의 산업별, 지역별, 규모별, 연도별, 분포 등의 일반적인 특성, ②벤처기업의 고용실태, ③정부의 벤처지원정책의 활용실태 등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평가와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우리 경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벤처기업을 활성화하는 몇 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선행연구 검토

1. 개념 정의

벤처 (Venture)는 사전적 의미는 ‘투기, 기회’ 등을 나타내며, 벤처기업이란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할 경우 상당한 기대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높은 위험수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의 개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따르는 실패가능성을 내포한다. 즉, 새로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기술적 성공여부와 이를 사업화하는 과정에서의 사업적 성공여부에 수반되는 실패의 위험성을 포함하게 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첨단기술산업 (high technology business or high-tech start-up), 신기술기반기업 (new technology-based firms), 모험기업 (risky business)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이장우, 1998). 예를 들어 Bollinger, Hope & Utterback (1983)는 벤처기업을 소수의 핵심창업자가 기술혁신 아이디어의 개발과 상업화를

기본 동기로 하여 설립한 업체라 했고, Cooper(1971)는 연구개발을 강조하거나 기술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둔 회사로 정의하는 등 연구자에 따라서 그 개념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위험성은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신생기업 (new business with high risk and high return)', '첨단중소기업 (high-technology small firm)'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으로서 R&D 투자비율이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이며, 창업 이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OECD에서는 'R&D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1997 ; 김영배 · 하성욱, 2000). 이처럼 벤처기업의 정의에 대해서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령 (1999년 4월)에서 벤처기업의 범위를 네 가지인 벤처캐피탈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신기술개발기업, 벤처평가우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은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조합)의 투자총액이 당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둘째, 연구개발 투자기업은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 비가 5%이상인 기업이며(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 지출된 비용만을 인정함), 셋째, 신기술개발기업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의해 생산된 제품 또는 주관 정부기관에서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제품의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총매출액의 25%이상인 기업을 의미하며, 넷째, 벤처평가우수기업은 평가기관에 의해 기술성 또는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러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첨단기술이나 노하우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규모의 기업으로,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모험기업 (Venture Business)"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벤처기업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기술개발,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공헌하는 주요 원천이 되고 있으며 (Vesper, 1980 ; Timmons & Bygrave, 1986 ; Cooper, Willard & Woo, 1986 ; McMullan & Vesper, 1987 ; Kichoff & Phillips, 1988), 기

술개발 기반의 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관련산업의 생산성 증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박경민, 1997).

한국의 경우, 벤처기업은 경제 구조조정의 한 방책으로, 또 21세기 새로운 산업 성장관인차로서 역할이 제시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되어 왔다. 관련된 서적들이 흥수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코스닥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열에 가까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괄적인 벤처기업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는 1970년 중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이진주(1984)에 의해 국내 최초로 벤처기업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 후 소수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나 특정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한정화(1993), 조형래(1994), 이장우(1997), 이장우(1998), 정승화·안준모(1998), 남영호·김완민(1998), 안준모·김종민(1999), 강병수(2000)). 특히, 포괄적인 벤처기업을 표본 조사한 대표적인 연구인 이장우·김선흥(1998)은 1997년 초에 벤처기업협회(KOVA)에 소속된 250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116개 기업을 표본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양현봉·주현·조영삼(1998)은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KOSDAQ)에 등록된 벤처기업,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출자한 벤처기업과 벤처기업협회 등록회사 총 506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3개 응답기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표본에서 종업원수가 100명 이상인 벤처기업이 36.9%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벤처기업이 43.6%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999년 8월 현재 중소기업청이 인증한 벤처기업들 중 종원업수 100명 이상과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기업의 비중이 각각 8%와 12%에 불과하여 신생 벤처기업보다는 상당히 성장한 벤처기업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산업별 분포나 지역별 분포도 인증 벤처기업에 비해 수도권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산업별 분포도 컴퓨터,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산업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벤처기업의 배태조직 및 일반적 특성, 그리고 벤처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등을 규명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벤처기업의 고용실태, 근로조건과 인력관리실태, 정부지원정책 등을 업종별·규모별 등 벤처기업 특성 별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특성을 도출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III. 조사설계

1. 조사대상과 조사시기

벤처기업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의될 수 있고, 정부가 제공하는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벤처기업도 현실적으로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벤처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정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 조치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이 인증한 벤처기업들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2000년 1월 현재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조사시기는 조사기간은 2000년 4월 26일~5월 10일(15일간)로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요원들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추출방법은 2000년 1월 현재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4,683개를 무작위 표본추출(Random Sampling)을 통해 549개를 추출하였고, 그 중에서 조사에 응한 395업체(응답율 71.9%)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방법 및 분석틀

본 조사는 최근 우리 경제에 산업정책 및 고용정책 차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벤처기업을 고용 및 근로조건과 인력관리실태와 정부의 벤처지원정책 활용도 측면에서 분석·평가하여 정부의 벤처정책과 인력양성정책을 위한 기초적인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조사 방법은 조사요원이 개별 벤처기업을 방문하여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인사 담당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들이 직접 설문지를 읽고 직접 기입하는 자계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dows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조사분석방법은 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하였다.

설문문항의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의 일반적 특성, 고용실태, 벤처지원정책 활용실태로 3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범주별 하위변수와 그 조작적 정의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벤처기업 실태분석을 위한 범주별 변수체계와 조작화

범주 내용	변수체계 및 조작화
일반적 특성	① 대표자의 전직, 학력, 전공별 구성비, ② 업종별 분포, ③ 지역별 분포, ④ 산업별 분포, ⑤ 설립경로별 분포, ⑥ 등록조건별 분포
고용실태	① 산업별 고용량, ② 벤처기업 특성별 고용규모, ③ 고용형태별 구성비, ④ 근로자 전직, 학력, 전공별 구성비, ⑤ 시계열별 평균 고용량의 변동추이, ⑥ 산업별 평균 고용량의 변동추이, ⑦ 인력충족상태, ⑧ 인력부족의 내용, ⑨ 해설연구인력 충족상태, ⑩ 산업별 인력 충족상태, ⑪ 우수인력유치 보상체계 도입 여부, ⑫ 연구인력확보의 장애요인과 확보방안
벤처지원정책 활용 실태	① 창업시 애로요인, ② 벤처기업의 선정의 효과, ③ 정부의 벤처자금 지원 내역, ④ 벤처자금 수혜 여부, ⑤ 정부지원 인력 활용도, ⑥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정책수단, ⑦ 향후 가장 필요한 벤처지원 정책

IV. 벤처기업 실태분석

1. 벤처기업의 일반적 특성

벤처기업 대표자(창업자)의 전직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기업 근무 31.4%, 중소기업 근무 25.6%, 다른 사업체 운영 21.5%로 전체의 78.5%로 나타난 반면, 학생이나 무직이 2%내외로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벤처기업 대표자의 전직별 특성으로 살펴본 결과, 일정기간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경력과 전문성, 경영에 관련된 Know-How를 축적한 다음 창업을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대표자의 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 49.9%로 가장 많았고 석사출신 19.2%, 고졸이하 14.9%, 박사출신 9.9%, 전문대졸 5.6%의 순으로 나타나 벤처기업 창업자의 대다수인 85% 이상이 대졸이상의 학력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자의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공학계열 54.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과학계열 17.7%, 자연과학계열 1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벤처기업 대표자의 전직·학력·전공별 분포

전직별	빈도	비율 (%)	학력별	빈도	비율 (%)	전공별	빈도	비율 (%)
대기업 근무	124	31.4	고졸이하	59	14.9	인문과학계열	29	7.3
중소기업 근무	101	25.6	전문대졸	22	5.6	사회과학계열	70	17.7
교수, 연구원 근무	59	14.9	대졸	197	49.9	자연과학계열	40	10.1
다른 사업체 운영	85	21.5	석사	76	19.2	공학계열	214	54.2
학생	6	1.5	박사	39	9.9	기타	36	9.1
무직	2	0.5	소계	393	99.5	소계	389	98.5
기타	16	4.1	무용답	2	0.5	무용답	6	1.5
소계	393	99.5	-	-	-	-	-	-
무용답	2	0.5	-	-	-	-	-	-
총계	395	100.0	합계	395	100.0	합계	395	100.0

<표 3> 업종별 분포

업종	업체 수	비율 (%)	업종	업체 수	비율 (%)
농업 및 임업	1	0.3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74	18.7
제조업	음식료품, 목재	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1	2.8
	가죽, 가방, 신발	2	자동차, 트레일러 및 운송장비	2	0.5
	펄프, 종이, 출판, 인쇄	5	가구 및 기타 제품	9	2.3
	섬유, 의복, 모피	7	재생용 가공원료	1	0.3
	코크스, 석유, 화합물, 화학제품	33	기타	3	0.8
	고무 및 플라스틱	3	도매 및 소매업	8	2.0
	비금속, 광물	20	금융 및 보험업	2	0.5
	제1차 금속	6	사업서비스업	78	19.7
	조립금속제품	24	교육서비스업	3	0.8
	기계 및 장비	80	기타	3	0.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12	합계	395	100

주 :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분류 방식이 다소 차이나는 이유는 모집단의 경우 중소기업청에서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분류하였기 때문임.

벤처기업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조업이 전체의 7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 19.8%으로 나타나 이 두 업종이 전체기업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3%,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8.7%, 석유·화학 제품 8.4%의 순으로 나타나 제조업분야에 있어서도 일부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33.7%, 경기 20.0%, 인천 6.8%로 전체의 60.5%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강원 0.3%, 전남 1.0%, 울산 1.0%, 충남, 1.5%로 그 수준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벤처기업의 분포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지역별·산업별·설립연도별 구성비

지역별	업체수	비율 (%)	산업별	업체수	비율 (%)	설립연도	업체수	비율 (%)
서울	133	33.7	전기, 전자, 반도체	73	18.5	70년이전	3	0.8
부산	26	6.6	기계, 금속	92	23.3	71-80년	20	5.1
대구	21	5.3	정보통신·멀티미디어·인터넷	72	18.2	81-90년	82	20.8
인천	27	6.8	소프트웨어	56	14.2	1991년	12	3.0
광주	14	3.5	화학, 생명공학	38	9.6	1992년	12	3.0
대전	26	6.6	비금속, 광물	21	5.3	1993년	16	4.1
울산	4	1.0	서비스	8	2.0	1994년	21	5.3
경기	79	20.0	환경, 섬유	17	4.3	1995년	23	5.8
강원	1	0.3	음식료품	5	1.3	1996년	25	6.3
충북	13	3.3	기타	13	3.3	1997년	43	10.9
충남	6	1.5	-	-	-	1998년	75	10.0
전북	10	2.5	-	-	-	1999년	51	12.9
전남	4	1.0	-	-	-	2000년 5.	11	2.8
경북	13	3.3	-	-	-	-	-	-
경남	18	4.6	-	-	-	-	-	-
합계	395	100.0	합계	239	100.0	합계	395	100.0

통계청 기준의 산업별 분류를 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분류하여 살펴보면, 기계 및 금속 23.3%, 전기·전자·반도체 18.5%, 정보통신·멀티미디어·인터넷

넷 18.2%, 소프트웨어 14.2%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을 설립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9년에 1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전에는 전체 벤처기업의 26%로 그 수준이 미미하였는데, 199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기업의 73.3%의 비중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1997년 이후가 전체의 35% 수준으로 이 시기에 벤처기업의 급성장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벤처기업의 설립 경로를 대기업 분사, 중소기업 분사, 개인창업, 소수 공동창업,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개인 창업 59.2%, 소수 공동창업 32.7%이 전체의 91.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을 등록조건²⁾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특허기술개발기업 24.1%, 신기술개발기업 21.8%, 연구개발 투자기업 21.0%, 벤처평가 우수기업 19.7%,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13.4%의 순으로 나타나 기술개발과 연구개발관련 벤처기업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 5> 설립경로와 등록조건별 구성비

설립경로	업체수	비율 (%)	등록조건	업체수	비율 (%)
대기업 분사	12	3.0	벤처캐피탈투자기업	53	13.4
중소기업 분사	10	2.5	연구개발투자기업	83	21.0
개인창업	234	59.2	특허기술개발사업	95	24.1
소수 공동창업	129	32.7	신기술개발기업	86	21.8
기 타	5	1.3	벤처평가 우수기업	78	19.7
합 계	390	100.0	합 계	395	100.0

2. 벤처기업의 고용실태

벤처기업의 산업별 고용실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395개 벤처업체의 총 근로자수는 14,870명이고,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37.74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산업별로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를 살펴보면, 전기·전자·반도체 산업 63.88명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고용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기계·금속 산업 38.95명, 정 보통신·멀티미디어·인터넷 산업 35.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학·생명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시행령(1999년 4월)에서 벤처기업의 등록조건을 다음의 4가지인 ①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② 연구개발 투자기업, ③ 신기술개발기업, ④ 벤처평가우수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기술개발기업을 특허기술개발기업과 신기술개발기업으로 구분하여 5개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신기술개발기업이 특허권을 획득여부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개별적인 특성파악과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공학 21.08명, 서비스 22.50명, 소프트웨어 26.32명으로 상대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전자·반도체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고용규모가 큰 것은 이 산업이 상대적으로 연구인력에 비해 생산인력이 더 필요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산업별 고용량

산 업	업체수	총원 (명)	평균고용 (명)	최소	최대	표준편차	분 산
전기, 전자, 반도체	72	4599	63.88	2	605	101.29	10260.59
기계, 금속	92	3583	38.95	1	260	50.33	2533.35
정보통신	72	2520	35.00	2	130	27.95	781.41
소프트웨어	56	1474	26.32	4	172	28.70	823.79
화학, 생명공학	38	801	21.08	1	130	25.06	628.13
비금속, 광물	21	589	28.05	4	170	40.47	1638.05
서비스	8	180	22.50	2	50	19.11	365.14
환경, 섬유	17	468	27.53	4	100	28.07	787.89
기 타	13	505	38.85	5	161	45.43	2063.97
음식료품	5	151	30.20	2	134	58.04	3369.20
합 계	394	14870	37.74	1	605	56.24	3162.44

<표 7> 벤처기업의 특성별 고용규모

구 분	4인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합계 (N)
벤처캐피탈	5.7	13.2	34.0	34.0	13.2	0.0	0.0	100.0 (53)
연구 개발	0.0	14.5	43.4	26.5	14.5	1.2	0.0	100.0 (83)
특허기술개발	7.4	26.3	36.8	20.0	8.4	0.0	1.1	100.0 (95)
신기술 개발	5.8	16.3	46.5	26.7	4.7	0.0	0.0	100.0 (86)
벤처평가우수	6.4	24.4	44.9	19.2	3.8	1.3	0.0	100.0 (78)
합 계	5.1	19.5	41.5	24.5	24.6	8.6	0.5	100.0 (395)

$$\chi^2 = 31.66, \text{ df}=24, p=.1356$$

벤처기업의 고용규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수가 10~29인업체 41.5%, 30~90인업체 24.6%, 5~9인업체 19.5%로 100인 이하의 소규모의 벤처기업이 전체의 90%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결국 벤처기업의 고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벤처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을 등록 조건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벤처캐피탈기업은 10-29인업체와 30-99인업체가 각

각 34.0%로 나타났으며, 연구개발기업은 10-29인업체 43.4%, 특허기술개발기업은 10-29인업체 36.8%, 신기술개발기업은 10-29인업체 46.5%, 벤처평가우수기업은 10-29인업체 44.9%으로 벤처기업 등록조건별 고용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벤처기업의 고용형태별³⁾ 근로자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93.13%, 일용근로자 3.69%, 임시근로자 3.18%로 대다수의 근로자는 상용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 68.65%, 여성 24.48%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1.89%, 여성 3.60%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고용형태에 대한 분석결과, 여타 전체 산업의 비정규직 고

<표 8> 고용형태별 구성비

(단위 : 명, %)

고용형태		전체근로자			전체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상용근로자	총 인원	10087	3597	13,684	237	380
	평균인원	26.13	10.10	36.23	2.93	4.37
	비율	68.65	24.48	93.13	1.86	2.59
임시근로자	총 인원	306	162	468	11	27
	평균인원	2.32	1.80	4.12	0.15	0.38
	비율	2.08	1.10	3.18	0.07	0.18
일용근로자	총 인원	330	211	541	29	122
	평균인원	3.47	2.27	5.74	0.41	1.65
	비율	2.25	1.44	3.69	0.20	0.83
전체	총 인원	10723	3970	14,693	277	529
	평균인원	27.70	10.29	37.99	0.70	1.34
	비율	72.98	27.01	100	1.89	3.60

3) 고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용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되어 있거나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을 통산하여 45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고, 임시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인턴사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은 임시근로자에 포함)이며, 일용근로자는 사업체에서 그날그날 필요에 의해 고용된 자로서 조사기준일 이전 3개월 동안 45일 미만 근로한 자이며, 시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또는 기간의 정합이 없이 고용이 보장되는 자로서 1주의 소정근로일수 또는 소정 근로시간이 사업체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상용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짧은 자를 의미한다.

용형태가 50%를 상회하는 것과는 달리 상용직 중심의 고용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 47.02%로 가장 많고 대졸 31.08%, 전문대졸 15.09%, 석사 5.57%, 박사 1.24%의 순으로 나타났고, 고졸이하 보다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타 산업과는 달리 근로자의 학력에 있어서도 고학력의 종업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별 구성을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총 7,130명이며 그 중 공학계열이 4,069명으로 60%로 여타 계열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인문과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자연과학계열은 각각 15% 내외로 다소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기술연구직 20.8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인 사무관리직 19.98%, 단순기능공 18.97%의 순으로 나타나 직종별로는 다소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종사자들의 전직별 구성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근무 34.2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학생 27.21%, 기타 14.96%, 대기업근무 9.21%, 실업자 6.39%의 순으로 나타나 창업자의 인적특성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근로자들의 학력, 직종⁴⁾, 전직별 특성을 종합하면, 전문대졸 이상, 공학계열, 중소기업출신, 기술연구직 등의 인적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고용량 변동을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95년 이후 1998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하반기에 업체당 평균 고용량이 0.125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회복이 본격화되었던 1999년 한 해 동안 업체당 평균 고용량이 2.9명 증가했으며 2000년에 들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4월 15일 현재까지 업체당 평균고용량이 2명에 가까운 증가세를

4) 직종에 설명을 부연하면, 기술개발·연구직은 연구소 또는 기술개발부서에 종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engineer)를 의미하고, 기술직은 기술개발부서 이외의 기술부서(기술판매, 생산기술, 품질검사 등)에 종사하는 기술자(engineer)와 기술공(technician) 및 생산현장의 기술업무를 계획, 감독, 집행하는 자(대체로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기사 1,2급 소지자). 생산직 중 기능공은 생산현장에서 6개월 이상의 기능습득과 상당한 이론적 배경을 요하는 특정기능직종에 종사하는 자(craftsman)(기능장, 기능사 1,2급, 기능사보자격증 소지자, 실업계 고교이상 졸업자), 생산직 중 단순작업공은 간단한 기술급득을 요하는 기술직종에서 이론적 배경이 필요없는 단순작업을 반복하여 행하는 자(operative)(단순노무자 포함)를 의미한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의 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IMF 이전인 1997년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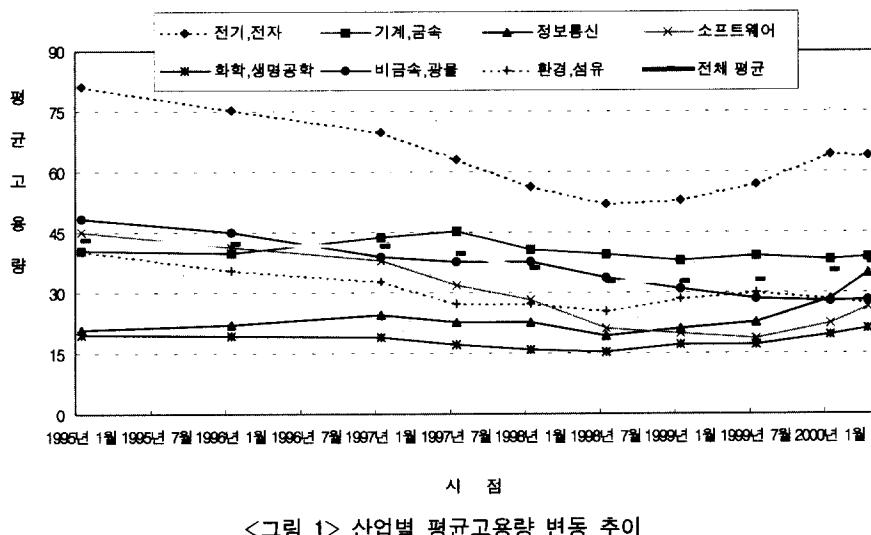
<표 9> 벤처기업 근로자들의 학력·전공·직종별 구성

학력	인원	비율 (%)	기업당 평균인원	전공	인원	비율 (%)	직종별	인원	비율 (%)	전직별	인원	비율 (%)
박사	177	1.24	0.45	인문과학	781	10.95	사무관리직	2,888	19.98	학생	3,466	27.21
석사	797	5.57	2.02	사회과학	1,117	15.67	기술연구직	3,010	20.82	설업자	814	6.39
대졸	4,446	31.08	11.26	자연과학	1,070	15.01	기술직	1,903	13.16	대기업	1,174	9.21
전문대졸	2,159	15.09	5.47	공학	4,069	59.07	기능공	2,308	15.97	중소기업	4,362	34.25
고졸이하	6,726	47.02	17.03	기타	454	6.37	단순기능공	2,742	18.97	연구소·대학	431	3.38
-	-	-	-	-	-	-	영업직	1,216	8.41	다른 벤처기업	261	2.05
-	-	-	-	-	-	-	기타	387	2.67	자영업	323	2.54
-	-	-	-	-	-	-	-	-	-	기타	1,906	14.96
합계	14,305	100.0	36.23	합계	7,130	100.0	합계	14,454	100.0	합계	12,737	100.0

<표 10> 평균고용량 변동 추이

시점	응답업체 수	합계	평균 고용인원	고용증가율 (%)
1995. 1. 1	135	5,820	43.11	-
1996. 1. 1	149	6,296	42.26	-1.9717
1997. 1. 1	171	7,105	41.55	-1.680076
1997. 7. 1	195	7,753	39.76	-4.308063
1998. 1. 1	231	8,373	36.25	-8.827968
1998. 7. 1	267	8,718	32.65	-9.931034
1999. 1. 1	309	10,128	32.78	0.398162
1999. 7. 1	346	11,437	33.05	0.823673
2000. 1. 1	372	13,263	35.65	7.866868
2000. 4. 15	395	14,870	37.65	5.610098

산업별 평균고용량 변동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은 1995년부터 평균 고용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1~2년 사이에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7월 1일을 분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인 산업은 전기·전자·반도체, 정보통신·멀티미디어·인터넷, 화학·생명공학, 환경·섬유 산업이고, 기계·금속 산업은 1999년 1월, 소프트웨어 산업은 1999년 7월, 비금속·광물은 2000년 1월에 증가세로 반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산업별 평균고용량 변동 추이

벤처기업의 인력총족 상태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 53.6%, 적정하다 45.9%, 과잉이다 0.5%로 나타나 벤처기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업체가 전체의 절반이상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의 정도를 벤처기업 특성별로 살펴보면, 벤처 평가우수기업 59.2%, 연구개발기업 57.5%, 신기술개발기업 55.6%의 순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인력총족 상태

구 분	과 임	적 정	부 족	합 계 (N)
벤처 캐피탈	2.0	45.1	52.9	100.0 (51)
연 구 개 발	0.0	42.5	57.5	100.0 (80)
특허기술개발	1.1	54.9	44.0	100.0 (91)
신기술 개발	0.0	44.4	55.6	100.0 (81)
벤처평가우수	0.0	40.8	59.2	100.0 (76)
합 계	0.5	45.9	53.6	100.0 (379)

$$\chi^2 = 8.41, df=8, p=.394$$

벤처기업의 인력부족의 내용을 학력으로 구분하여 보면, 대졸부족 50.7%, 고졸부족 34.4%, 석(박)사 부족 14.9%로 나타났다. 또한 직종별로 보면, 기술개발 및 연구직 39.1%, 단순기능공 18.0%, 기능공 16.9%, 기술직 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벤처기업의 학력과 직종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대졸층의

기술개발 및 연구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벤처기업이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연구직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석(박)사 출신과 고졸출신에 대한 수요는 핵심 연구개발인력과 제품생산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표 12> 부족인력의 학력별, 직종별 구성비

학력별 수요	총인원	비율 (%)	직종별 수요	총인원	비율 (%)	
석(박)사 부족	152	14.9	기술개발, 연구직	584	39.1	
대졸 부족	518	50.7	기술직	244	16.3	
고졸 부족	352	34.4	생산직	기능공	252	16.9
-	-	-		단순기능공	269	18.0
-	-	-	영업직	136	9.1	
-	-	-	기타	9	0.6	
합계	1022	100.0	합계	1494	100.0	

특히 핵심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력부족의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업체의 61.6%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인력 부족 총원은 606명으로 업체당 평균 1.5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체당 평균 부족인력을 산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 산업 4.98명, 소프트웨어 3.84명, 전기·전자·반도체산업 3.08명, 음식료품 3.00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금속·광물산업 1.00명, 환경·섬유산업 1.67명으로 상대적으로 연구인력부족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핵심연구개발 인력의 부족현상은 첨단 정보통신·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보상체계(스톡옵션, 우리사주제)의 도입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이런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114개 업체로 전체의 30.1%로 나타났다. 이런 유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3년내에 우수인력유인 보상체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3.4%가 도입하겠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따라서 향후 이런 제도가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수인력 유인보상체계를 도입을 선택한 업체를 대상으로 동 제도가 우수인력확보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가 실제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냈다. 특히 벤처캐피탈기업과 신기술개발기업에서 도움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산업별 핵심 연구개발 인력부족 정도

산 업 별		전 체 업 체			인력부족업체		
산 업	부족총원	업체수	평균	표준편차	업체수	평균	표준편차
전기, 전자, 반도체	117	73	1.60	2.03	38	3.08	1.82
기계, 금속	77	92	0.84	1.25	35	2.20	1.05
정보통신	214	72	2.97	4.17	43	4.98	4.38
소프트웨어	119	56	2.13	2.40	31	3.84	1.93
화학, 생명공학	38	38	1.00	1.52	15	2.53	1.41
비금속, 광물	6	21	0.29	0.46	6	1.00	0.00
서비스	4	8	0.50	0.93	2	2.00	0.00
환경, 섬유	5	17	0.29	0.69	3	1.67	0.58
기타	20	13	1.54	1.94	8	2.50	1.93
음식료품	6	5	1.20	1.64	2	3.00	0.00
합 계	606	395	1.53	2.49	183	3.31	2.74

<표 14> 우수인력유인 보상체계 (스톡옵션 · 우리사주제)의 도움 정도

구 분	매우 도움	도움이 됨	도움이 안됨	매우 도움안됨	합 계(N)
벤처 캐피탈	22.7	72.7	4.5	0.0	100.0(22)
연구 개발	20.0	60.0	16.0	4.0	100.0(25)
특허기술개발	6.7	86.7	6.7	0.0	100.0(15)
신기술 개발	19.2	76.9	3.8	0.0	100.0(26)
벤처평가우수	25.9	59.3	14.8	0.0	100.0(27)
합 계	20.0	69.6	9.6	0.9	100.0(115)

$\chi^2 = 10.56$, df=12, p=.567

벤처기업의 핵심연구개발인력을 확보에 따른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근로조건 등 연구인력의 요구조건과의 불일치 51.7%로 가장 많았고 전문인력 자체 부족 27.7%, 이직률 높음 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 등의 불일치는 특허기술개발기업, 연구개발기업, 벤처캐피탈기업 등에서 높게 나타났고 전문인력 부족은 벤처캐피탈기업, 신기술개발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향후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계획과 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특별한 계획 없음 35.7%로 가장 많았고, 우수인력 유인보상체계 도입 34.8%, 대학 및 연구소방문 홍보 14.6% 순으로 나타났다. 우수인력 유인보상체계 (스톡옵션 또는 우리사주제 등)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주로 벤처캐피탈기업에서, 대학 · 연구소

방문·홍보는 신기술개발기업에서 고액연봉제시는 연구개발기업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타났다.

<표 15> 우수 인력확보의 난점

구 분	전문인력 자체부족	근로조건,요구 조건 불일치	이직율 높 음	접근통로 차 단	기 타	합계(N)
벤처 캐피탈	34.1	52.3	9.1	4.5	0.0	100.0 (44)
연 구 개 발	32.5	53.2	10.4	3.9	0.0	100.0 (77)
특허기술개발	16.7	58.3	10.7	8.3	6.0	100.0 (84)
신기술 개발	33.3	44.4	13.9	4.2	4.2	100.0 (72)
벤처평가우수	26.1	49.3	20.3	2.9	1.4	100.0 (69)
합 계	27.7	51.7	13.0	4.9	2.6	100.0 (346)

$\chi^2 = 22.16$, $df=16$, $p=.138$

<표 16> 우수 인력확보 방안

구 分	우수인력유인 보상체계활용	대학·연구소 방문·홍보	고액연봉 제 시	기타방법 활 용	계획없음	합계(N)
벤처 캐피탈	53.5	7.0	4.7	4.7	30.2	100.0 (43)
연 구 개 발	35.6	12.3	21.9	1.4	28.8	100.0 (73)
특허기술개발	22.5	18.8	16.3	0.0	42.5	100.0 (80)
신기술 개발	37.3	22.4	7.5	0.0	32.8	100.0 (67)
벤처평가우수	33.8	9.2	15.4	0.0	41.5	100.0 (65)
합 계	34.8	14.6	14.0	0.0	35.7	100.0 (328)

$\chi^2 = 35.10$, $df=16$, $p=.004$

4. 벤처지원정책 활용실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요인에 대한 조사결과, 가장 큰 애로점은 창업자금 마련으로 절반이상인 55.6%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문인력의 확보 18.4%,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특성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창업자금마련의 경우 벤처기업 평균인 55.6%보다 많은 비율로 나타낸 기업은 특허기술개발기업으로 69.8%, 연구개발기업 61.6%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인력의 확보의 경우 벤처기업 평균인 18.4%보다 많은 비율을 나타낸 기업은 벤처캐피탈로 34.6%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요인을 종합하면, 창업자금마련과 전문인력확보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벤처기업 창업시 애로요인

구 분	성공 불확실성	창업자금 마련	복잡한 절차	주위의 만류	창업 정보부재	전문인력 확보	기타	합계(N)
벤처 캐피탈	13.5	40.4	5.8	3.8	1.9	34.6	0.0	100.0(52)
연구 개발	12.3	61.6	2.7	2.7	4.1	16.4	0.0	100.0(73)
특허기술개발	10.5	69.8	3.5	1.2	1.2	10.5	3.5	100.0(86)
신기술 개발	14.5	53.9	9.2	0.0	2.6	18.4	1.3	100.0(76)
벤처평가우수	19.7	45.1	2.8	5.6	7.0	18.3	1.4	100.0(71)
합 계	14.0	55.6	4.7	2.5	3.4	18.4	1.4	100.0(358)

$\chi^2 = 39.86$, df=24, p=.022

정부의 벤처기업 선정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 회사의 이미지 향상 5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고, 자금용통 용이 23.4%, 우수인력유치 5.2%의 순으로 나타나 정부가 인정한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회사 이미지 제고와 자금용통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효과가 별로 없다가 16.4%로 나타나 대조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벤처기업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회사이미지 향상에서는 벤처평가우수기업이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금용통용이는 벤처캐피탈기업과 신기술 개발기업이 각각 32.7%와 25.3%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수인력유치는 연구개발기업에서 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벤처기업의 특성별로 벤처기업의 선정에 대한 효과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벤처기업 선정의 효과

구 分	회사이미지 향 상	자금용통 용 이	우수인력 유 치	기 타	별로없다	합계(N)
벤처 캐피탈	44.2	32.7	5.8	1.9	15.4	100.0(52)
연구 개발	52.5	18.8	8.8	1.3	18.8	100.0(80)
특허기술개발	55.3	23.4	4.3	0.0	17.0	100.0(94)
신기술 개발	54.2	25.3	3.6	2.4	14.5	100.0(83)
벤처평가우수	60.5	19.7	3.9	0.0	15.8	100.0(76)
합 계	54.0	23.4	5.2	1.0	16.4	100.0(385)

$\chi^2 = 11.79$, df=16, p=.758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수혜 여부에 대한 분석결과, 정부지원자금을 활용한 업체가 전체의 65.1%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특성별로 자금 수혜 여부를 살

펴보면, 연구개발기업 71.4%, 벤처평가우수기업 65.3%, 특허기술개발기업 64.0%, 벤처캐피탈기업 62.3%, 신기술개발 기업 62.2%로 연구개발과 벤처평가우수기업에서 정부지원자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벤처기업의 정책자금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지원건수가 총 302건 가운데 203건 (67.2%)을 차지하였고 지방정부의 지원건수는 53 건 (17.5%),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지원이 16건 (5.2%)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의 지원기관은 주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지원건수가 12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통신부의 정책자금이 51건으로 나타나, 벤처기업 정책자금은 중앙정부가 과반수 이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청과 산하공단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벤처기업 정부지원자금 수혜 여부

자금수혜여부	벤처캐피탈	연구개발	특허기술개발	신기술 개발	벤처평가 우수	합 계
지원자금 수혜	62.3	71.4	64.0	62.2	65.3	65.1 (243)
지원자금비수혜	37.7	28.6	36.0	37.8	34.7	34.9 (130)
합 계(N)	100.0 (53)	100.0 (77)	100.0 (89)	100.0 (82)	100.0 (72)	100.0 (373)

$\chi^2 = 1.89$, df=4, p=.755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인력에 대하여 벤처기업들의 활용도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벤처기업의 정부지원인력은 총 787명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 인력활용도가 가장 높은 활용분야는 병역특례 26.6%, 정부지원인턴제 12.4%, 공공근로 7.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활용업체당 평균인원을 살펴보면, 병역특례 5.2명, 공공근로 4.5명, 정부지원인턴제 2.3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지원 인력 활용도에서 병역특례가 다른 인력지원제도보다 활용도가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0> 정부지원인력 활용도

인력활용방법	업체수	활용업체수	활용비율 (%)	총인원 (명)	활용업체 당 평균인원 (명)
병역특례	395	105	26.6	546	5.2
정부지원인턴제	395	49	12.4	114	2.3
공공근로	395	28	7.1	127	4.5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 응자지원 24.9%, 투자지원 22.9%, 코스닥활성화 22.3%, 신용보증확대 12.9%의 순으로 나타나 자금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전체의 83.1%로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벤처기업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응자지원의 경우 연구개발기업이, 투자지원의 경우 벤처평가우수기업이, 코스닥활성화의 경우 벤처캐피탈기업이 각각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정책수단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벤처기업 특성에 따라 정책수단 역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이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21>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정책수단

구 분	응자 지원	투자 지원	신용보증 확대	코스닥 활성화	인력 지원	창업붐 조성	기 타	합계 (N)
벤처캐피탈	16.0	16.0	20.0	30.0	2.0	14.0	2.0	100.0 (50)
연구 개발	25.3	21.3	12.0	28.0	4.0	6.7	2.7	100.0 (75)
특허기술개발	33.3	17.3	9.9	19.8	1.2	14.8	3.7	100.0 (81)
신기술 개발	24.3	27.0	13.5	18.9	2.7	8.1	5.4	100.0 (74)
벤처평가우수	21.7	31.9	11.6	17.4	7.2	8.7	1.4	100.0 (69)
합 계	24.9	22.9	12.9	22.3	3.4	10.3	3.2	100.0 (349)

$\chi^2 = 26.32$, df=24, p=.337

향후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 자금지원 52.1%, 판로지원 13.0%, 조세지원 12.7%, 인력지원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기존의 벤처기업의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세제혜택) 등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과 인력지원 등에도 좀 더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벤처기업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금지원의 경우는 특허기술개발기업에서, 조세지원은 벤처캐피탈기업에서, 판로지원은 신기술개발기업에서, 인력지원은 벤처캐피탈기업과 연구개발기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 특성별로 정부의 지원정책의 수단을 차별화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2> 향후 가장 필요한 벤처지원정책

구 분	자금 지원	조세 지원	판로 지원	규제 완화	인력 지원	기술 지원	경영 지원	기 타	합 계(N)
벤처캐피탈	35.8	18.9	11.3	1.9	15.1	13.2	1.9	1.9	100.0 (53)
연구 개발	53.1	8.6	14.8	3.7	14.8	3.7	0.0	1.2	100.0 (81)
특허기술개발	63.2	10.5	10.5	3.2	3.2	7.4	1.1	1.1	100.0 (95)
신기술 개발	51.8	16.9	14.5	2.4	10.8	3.6	0.0	0.0	100.0 (83)
벤처평가우수	48.6	10.8	13.5	5.4	13.5	6.8	1.4	0.0	100.0 (74)
합 계	52.1	12.7	13.0	3.4	10.9	6.5	0.8	0.8	100.0 (386)

$\chi^2 = 30.31$, $df=28$, $p=.348$

V. 요약 및 정책제언

벤처기업의 고용실태와 벤처지원정책 활용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대표자의 출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체 출신이 78.5%, 학력은 대졸이상이 85% 이상, 전공분야별로는 공학계열 54.2%, 업종별로는 제조업인 75.0%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33.7%, 경기 20.0%, 인천 6.8%로 전체의 60.5%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벤처기업들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기계 및 금속 23.3%, 전기·전자·반도체 18.5%, 정보통신·멀티미디어·인터넷 18.2%, 소프트웨어 14.2% 순으로 나타났고, 설립연도별로는 1999년에 1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이전에는 전체 벤처기업의 26%로 그 수준이 미미하였는데, 199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기업의 73.3%의 비중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1997년 이후가 전체의 35%수준으로 이 시기에 벤처기업이 급성장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벤처기업의 산업별 고용실태를 보면, 업체당 평균 근로자수는 37.74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산업별로 업체당 평균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전기·전자·반도체 산업에서 63.88명을 고용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고용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기계·금속 산업 38.95명, 정보통신·멀티미디어·인터넷 산업 3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학, 생명공학 21.08명, 서비스 22.50명, 소프트웨어 26.32명으로 상대적으로 고용량이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전자·반

도체 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고용규모가 큰 것은 이 산업이 상대적으로 연구인력에 비해 생산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벤처기업의 인력충족 상태에 대한 조사결과,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 53.6%, 적정하다 45.9%, 과잉이다 0.5%로 나타나 벤처기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업체가 전체의 절반이상으로 나타났다.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벤처기업의 학력과 직종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졸층의 기술개발 및 연구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력 유인보상체계(스톡옵션, 우리사주제)를 도입한 기업은 114개 업체로 전체의 30.1%로 나타났다. 이런 유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2-3년 내에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3.4%가 도입하겠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따라서 향후 이런 유인제도가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요인은 창업자금 마련이 절반이상인 55.6%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문인력의 확보 18.4%,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정부의 정책은 융자지원 24.9%, 투자지원 22.9%, 코스닥활성화 22.3%, 신용보증확대 12.9%의 순으로 나타나 자금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전체의 83.1%로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정책이 벤처기업의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벤처기업 지원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 자금지원 52.1%, 판로지원 13.0%, 조세지원 12.7%, 인력지원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기존의 벤처기업의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세제혜택) 등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벤처기업의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과 인력지원 등을 좀 더 역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벤처기업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적, 제도적 측면에 대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의 본질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패할 위험이 높은 반면 성공할 경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술과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와 그 사업의 실패에 따른 정리 및 성공으로부터의 이익회수 시스템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벤처기업 정책의 초점은 생존을 지탱해주는 것이 아닌 벤처 비즈니스에의 진입과 퇴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적·제도적 뒷받침, 실패한 기업의 정리를 위한 파산관련 법적·제도적 정비, 성공한 벤처기업이 M&A를 통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

장환경의 조성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기존의 자원과 보호 중심의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은 근본적으로 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계 기업의 퇴출 장벽을 형성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정책은 수혜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과다한 감독비용을 초래하며, 근본적으로 수혜기업의 독자적 경쟁력 구축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시장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주고 시장을 통한 정책자금의 간접지원을 통해 시장이 지원기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벤처기업의 자금시장은 이미 공급자 시장이 아니라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과다한 투자자금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 확대를 지속해서는 안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배분은 벤처캐피탈, 코스닥 등 자본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미래에 벤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명공학 등 자산의 축적에 직접 투자해야 한다.

넷째,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인큐베이터 산업을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이 궁극적으로 해외 현지의 네트워크를 직접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한국기업들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교류보다도 현지의 판매법인, 첨단 기술기업, 벤처캐피탈 및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병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의 창업특성과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 2000.
- 김영배·하성욱,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현황 : 벤처인증기업 전수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제3권 제1호, 2000.
- 남영호·김완민,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가능성 분석 :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1호, 1998.
- 노동부, 「2000년 2/4분기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2000.
- 박경민, 「벤처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LG경제연구원, 1997.

- 벤처기업협회, “한·미 비교를 통한 벤처산업의 발전 전략,” 97 한·미 벤처포럼 자료, 1997.
- 안준모·김종인, “한국 정보통신 벤처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창업자의 경험, 지식요인을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제2권 제1호, 1999.
- 양현봉·주현·조영삼, “한국벤처기업의 특성분석 및 육성방안,”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1호, 1998.
- 유규창·유효상, 「벤처기업의 경영현황과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00.
- 이장우, “중소기업의 대 대기업 경쟁전략,” 「경영학 연구」 제25권, 1997.
- _____, “성공벤처기업의 특성 사례연구,”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1호, 1998.
- 이장우·김선흥, 「벤처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벤처기업협회, 1998.
- 이진주, 「모험기업, 모험자본, 기술창업자」,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연구센터, 1984.
- 정승화·안준모, “벤처기업성장과 핵심경영과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을 중심으로,” 「벤처경영연구」, 제1권 제1호, 1998.
- 조형래, “창업인의 특성, 제품혁신성과 벤처기업 성과간의 상황적 관계,”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학위논문.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 「벤처기업 지원총람」, 2000.
- 한정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실태와 활성화 방안,” 대한상공회의소, 1993.
- Bollinger, L., K. Z. Hope, and J. M. Utterback., “A Review of Literature and Hypotheses on New Technology-Based Firms,” *Research Policy* Vol. 12, 1983.
- Cooper, A. C., “Spin-off and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IEEE Transaction on Engineering Management*, Vol. 8, 1971.
- _____, Willard, G. E. and G. Y. Woo, “Strategies of High performance New and Small Firms : A Reexamination of the Niche Concep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 1986.
- Kichoff, B. & B. Phillips, “The Effect of Firm Formation and Growth on Job Cre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3, 1988.
- McMullan, W. E. and K. Vesper, “New Venture and Small Business Innovation for Economic Growth,” *R & D Management* vol. 17, 1987.
- Timmons, J. A. and W. D. Bygrave, “Venture Capital's Role in Financing Innovation for Economic Growth,”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 1986.
- Vesper, K. H., *New Venture Strategies*, Prentice-Hall : Englewood Cliffs, N. J., 1980.